

파면이나 복귀냐...尹 운명 가를 8인의 선택은

NEWS

2025년 4월 4일 금요일

전원일치 인용 우세...6인 이상 찬성 '파면'

5대 3·4대 4 구도 기각·각하 맨 '직무복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하면서 재판관 8인이 어떤 의견을 채택할 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해 사회적 혼란을 잠재울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그간 다른 사건 선고에서 보여준대로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려 기각 판정을 할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8(인용)대 0(기각·각하) 전원일치부터 7대 1, 6대 2까지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 상태가 되며,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4월 4일 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선은 6월 3일 전후로 예상된다.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므로, 정치권은 즉각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반면 5대 3, 4대 4 등 견해가 엇갈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현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한다.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각하 결정이 선고된다. 탄핵소추가 타

당하지 않거나 분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이나 기각을 막론하고 적어도 적법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재판관이 과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별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8인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내놓은 주요 결정 8건 중 2건에선 각각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대립했고, 나머지 6건은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였다.

현재는 1월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는데, 재판관들의 견해는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 2인 의결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경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그 뒤에 나온 주요 사건들은 전원일치로 결정하면서도 세부 쟁점에 관해 일부 재판관이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달리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현재는 2월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다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심판 청구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국회의 사후적인 '임명 촉구 결의안' 가결로 보완됐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같은 날 현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며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이 결정에는 별개 의견도 없었다.

3월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4건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최 원장 사건의 경우 일부 법률 위반이 있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는 게 법정 의견이었는데, 이미선·정경미·정계선 재판관은 추가 법률 위반 사항이 있다고 지적하는 별개 의견을 냈다.

3월 27일에 나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분산됐다.

같은 기각 의견 안에서도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경미 재판관은 위헌·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잘못은 아니라는 의견을,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위법도 없다는 의견을 냈다.

의견의 동조 경향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문형배·이미선·정경미·정계선 재판관 등 4인과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등 3인이 각각 같은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이성우 기자 solee23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중구로 헌법재판소 앞 전자계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정이 표시되고 있다.

尹대통령 탄핵심판 현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 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현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현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현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

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경찰은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천명을 비롯해 행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김영록 지사, COP33 유치·댐 주변 지원 확대 건의

김완섭 환경부 장관 면담 상수원 보호 규제완화 요청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오는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와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 지원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 자리에서 COP33 유치, 기후대응팀 등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등을 당부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국제기구와 NGO 등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가장 권위있는 기구다. 김 지사는 제33차 총회의 대한민국 유치 선언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모델을 제시하는 전남·경남 남해안 남중권 12개 시군 공동 유치를 위한 계획도 시 여수 선 지정을 요청했다.

또 댐 주변지역 주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완섭 장관을 만나 기후대응팀 관련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상향 등도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를 하고 있다.

지원사업비 상향과 지방하천인 화순동복천의 체계적 물 관리 추진을 위한 국가하천 승격도 요청했다.

일반 건축행위 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생활·경제활동 등에 피해를 받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국민 친화적인 환경정책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상수

원관리규칙 개정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에 김완섭 장관은 "댐 주변 주민이 입는 피해와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민의 불편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전남도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지역 복합문화 공간 'Park1538광양' 준공

광양제철소 홍보관·미술관·야외광장 등 조성

전남도는 3일 포스코에서 광양시 금호동 금호대교 인근 수변지역에 지역 복합문화 공간인 'Park1538광양'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창환 전남도 경제부지사,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고재윤 포스코광양제철소장, 권관영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회회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최대원 광양시의회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Park1538'은 열린 공간을 의미하는 'Park'와 철의 녹는점이자 포스코 임직원들의 꿈과 열정을 의미하는 '1538'의

합성어다.

Park1538광양은 지역 복합문화 공간으로 지상 4층(1만 175㎡) 규모의 홍보관과 지상 3층(1만 8364㎡) 규모의 교육관으로 구성됐다. 건물 외관 및 인테리어는 광양 지역명과 연계해 '빛의 물결' 콘셉트의 웨이브 디자인을 반영하고, 외장재는 포스코 특허 강종인 포스맥을 적용했다.

홍보관은 광양제철소의 역사, 현재, 비전 등을 테마로 구성해 소개하고 있고, 교육관에는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한 리더십센터와 기술교육센터가 들어선다. 대강당, 화상강의장, 이벤트

홀 등 학습 공간과 리프레시 라운지, 식당, 카페 등 직원 휴게공간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약 140평 규모의 미술관도 함께 조성됐다. 야외 광장은 건축물 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경관을 조성, 지역민의 편안한 휴식과 산책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박창환 부지사는 "Park1538광양 개관은 우리나라 철강 역사를 기억하고 철강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게 보여주고 있다"며 "철이 1538에서 새롭게 태어나듯, 이 자리가 광양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양=김귀진 기자 kjkjin@gwangnam.co.kr

더욱 특별하고 품격 있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

HOTEL 아트하임

VIP CLUB 무기명회원 모집

상담문의 062.415.7330

혜택	Vvip 1천만 (3년)	Vip 4백만 (1년)
숙박	연40박 (한시적), 추가 숙박시 주중 30% 주말 20%	
조식	숙박시 조식 2인 무료(연 36매) 추가 증정	
사우나	무료 사용	
피트니스	무료 사용	
커피숍	커피 50% 할인, 기타음료 20% 할인	
골프대회	그린피 무료, 시상식, 연 1회	
컨퍼런스룸	연 10회, 1회 타임 3시간 무료 사용	
연회장	10% 할인	
웰니스프로그램	전문의 초청 건강세미나 연 2회	
광남일보	기업탐방 및 오피니언 리더 특집기사 연 2회 전문 이미지 광고 광남아카데미 초청 강연 연 10회 (석식제공, 사전예약)	
광주버스 방송	3년 3회 제공 (4,800만원 상당)	1년 1회 제공 (1,600만원 상당)
	20대 12개월 / 50대 4개월 / 100대 2개월	
월간지전라도인	3년 무료구독	1년 무료구독

(주) 호텔아트하임 멤버십 클럽은 지역정치지 "광남일보" 종합광고대행사 "에드하임"이 함께합니다.

★ 대면회장(150명) / 소면회장(30명) /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운영

(주) 호텔아트하임(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예약문의 062)236-5881